

원저 () 증례보고 (o)

제목

선천성 정중성 경부 틈새 (congenital midline cervical cleft)

소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외과

저자

차치환, 한석주

발표자: 차치환

책임저자: 한석주

초록

(배경) 선천성 정중성 경부 틈새 (congenital midline cervical cleft)는 인두 궁(branchial arch)의 발생 과정 중에 생기는 매우 드문 질환 중 하나로, 앞쪽 경부 정중양의 피부 결손 및 상부의 유두 모양 피부 돌출이 동반되어 나타나고 피하 층에는 섬유화 다발을 동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에 수술하지 않을 경우 피부 반흔의 수축과 변형을 초래하므로, 심각한 기능상의 장애와 미용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치료는 모든 이상 조직들을 완전히 절제 해내고 Z 성형술 (Z-plasty) 등을 이용하여 상처를 재건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근 본원에서 경험한 생후 3개월 환자의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생후 3개월 된 남자 환자로 제태연령 38주에 4.17킬로그램으로 출생하였다. 출생 당시부터 경부 정중양의 피부 결손이 관찰되었고, 내원 시 상부의 피부 돌출 소견도 동반되어 있었다. 소량의 장액성 분비물이 피부 결손 부위에서 관찰되었다. 수술 전 누공조영술 및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 약 1센티미터 길이의 누공이 피부와 흉골 사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른 장기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을 통해 흉골까지 닿아있는 모든 이상 조직들을 완전히 절제하였고 선상 모양의 상처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 상 앞쪽 경부의 띠근육 (strap muscle)이 완전히 닿아있지 않아 갑상샘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절제한 조직의 병리 결과는 아가미 틈새 이상 (branchial cleft anomaly)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수술 부위 상처는 양호하며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하고 있다.

(결론) 매우 드문 질환 중 하나인 선천성 정중성 경부 틈새를 최근 본원에서 수술하여 경과 관찰하고 있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